

# 내일 Z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2019 11 Vol. 535

일터 만족도가 회사 성장의 에너지가 되는 소프트캠프(주)

# Contents



## 06 따뜻한 말 한마디

행복한 노동, 안전한 일터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 10 맞춤 솔루션

넘어진 자리에 지지의 손길을 내밀다

## 14 人 스토리

절망을 털어내고 희망을 재충전합니다  
제조업 K사 근로자 12년차 박정석 님



## 18 중장년 희망일터

퇴직 후 병원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김창진 님

## 22 청년 불패

용기 배워 원하는 취업 이뤄낸 성경윤 님  
세계지도 보며 해외취업 그렸던 손재우 님

## 26 기술의 힘

16세의 양복점 사장에서 기술인으로 우뚝 선  
레이몰드(주) 하광운 대표

## 30 정책 돋보기

아이와 더 많은 시간 함께하세요

## 34 정책 수첩

우리 동네는 일자리 천국

## 38 잡툰

점심 회식 메뉴 정하기

## 40 고용노동 뉴스



## 46 같이의 가치

원석을 찾아내 보석으로 탄생시킨다 행복나무(주)

## 50 해피 트게더

임금체계 혁신으로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된다  
광주 해피뷰병원

## 54 하우투 워라밸

일터의 만족도가 성장의 힘이 되다 소프트캠프(주)

## 58 노사형통

기업 발전의 새 역사, 노사 소통으로 시작되다  
영진약품(주)

## 62 일자리 가이드

취업·일자리 박람회

## 64 내일 직업 사전

사업서비스 분야 新직업

## 68 SOS 고민 상담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외



## 70 옛 직업을 찾아서

가난을 메꿔주던 직업, 땀장이

## 72 직장인 에너지 충전소

늦가을에 핀 문학여행

## 74 동의業보감

직업성 암

## 76 스마트 재테크

'금리'만 잘 알아도 재테크 고수

## 78 내일스타그램

내가 사랑하는 책

## 82 독자 마당

고용노동부 소식지 2019 11월호 <내일>

통권 강남 100389(통권 535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이재갑 편집위원장 김덕호(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77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제작 큐라인(02-2279-2209) www.qline.co.kr

**독자 맞춤 칼럼**  
**이럴 땐,**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일**

**업무 중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막막한 근로자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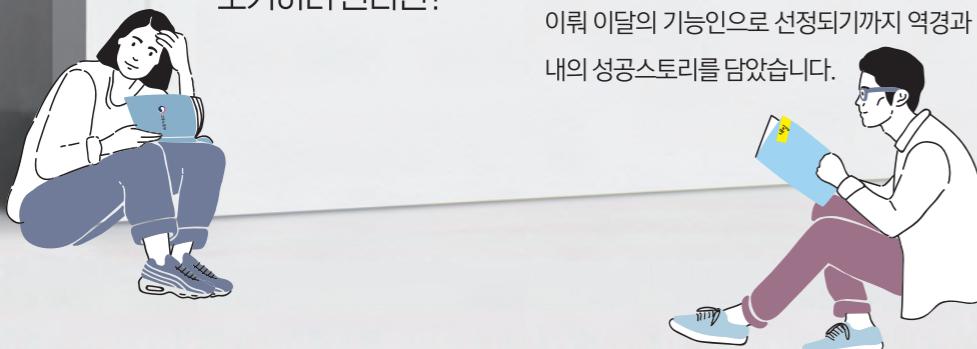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됐다면 몸과 마음의 상처는 물론 생계까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산업재해에 대해 안내하는 '맞춤 솔루션'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자신의 일과  
 보람을 함께 찾고 싶은  
 중장년이라면?**

회사를 퇴직하고 나와 또 다시 새로운 자신의 삶을 살게 된 중장년에게 일은 경제활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람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활동과 보람, 일거양득을 이뤄내며 만족스러운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이 있어 소개합니다.

**기술인의 꿈이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하려 한다면?**

'기술의 힘'에는 16세의 나이에 가장이 되어 부친이 경영하던 양복점을 떠맡아 주경야독하며 생계를 꾸려갔던 주인공이 최고의 기술인으로 꿈을 이뤄 이달의 기능인으로 선정되기까지 역경과 인내의 성공스토리를 담았습니다.



2019년  
**11월** 이야기

**봄이 있기에  
 겨울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입동,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11월에 들어있습니다. 차디찬 겨울은 모든 생명을 앗아갈 듯 냉혹한 추위를 몰고 오겠지만 굳은 대지 위로 다시 돌아올 새봄, 새싹을 위해 대지의 생명체들은 분주히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겨우내 숨죽인 생명체들이 흑한을 견딘 후 얼었던 땅을 깨고 나와 봄을 맞듯 우리들도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견디어가곤 합니다.

이번 호 월간 <내일>의 주인공은 산재근로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산업재해를 겪게 되었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산재근로자들은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것입니다. 월간 <내일>에 담긴 정보와 따뜻한 위로가 산재근로자들에게 봄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행복한 노동, 안전한 일터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공인노무사  
유성규 님의  
조언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이뤄지는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때때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는 때론 노동자의 삶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행복한 노동과 안전한 일터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를 함께 나눠봅니다.

글 유성규(공인노무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익위원)



일 때문에 발생했다면, 어떤 유형의 사고와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일 때문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2,14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산업재해는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만약 사고와 질병이 일 때문에 발생했다면 어떤 유형의 사고와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안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적절히 보상하고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돋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처리 방법, 절차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Q\_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_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금 등 일정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Q\_ 사업주가 동의해 주어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A\_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권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입니다. 신청을 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사업주가 그 신청에 반대하더라도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접수가 됩니다.**

**Q\_ 퇴직한 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_ 퇴직한 후에도 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성 암과 같은 질병은 퇴직 후 몇십 년이 흘러 나타나기도 합니다. 퇴직한 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퇴직한 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실업 상태여도 그신청이 가능합니다.**

**Q\_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_ 사업장 시설, 설비의 결함이나 다른 노동자의 실수가 아니라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의 과실 여부나 사업주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받을 권리 있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오늘도 이를 묵묵히 견뎌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으면 사업주에게 생산과 매출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그 신청권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업주들이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는 것을 꺼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 권리는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문가로, 현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익위원, 서울시 안전자문단 위원,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산재 100문 100답」(공저, 매일노동뉴스, 2012), 「임금에 관한 모든 것, 임금 100문 100답」(공저, 매일노동뉴스, 2013) 등이 있다.



## 넘어진 자리에 지지의 손길을 내밀다

산재근로자의 건강한 일터 복귀를 돋는 법과 제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터에서의 사고는 노동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당장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뒤따라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어떤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정리 편집부

### 산업재해 유형과 상황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적용과 종류

## 01

**Q** 준비 없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 재취업 준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건설기계 노동자 중 레미콘 운송 직종을 포함하여 27개 전체 건설기계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확대·개선되었습니다. 재해위험이 높아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본인부담)을 허용하던 8개 직종에 더하여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증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제가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산재를 입어 당장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막막합니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산재로 인정되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받습니다.

-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일 것
-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진폐장해연금: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매월 평균임금의 11일분~2일분, 진폐유족연금: 사망 전 진폐보상연금 금액)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가 해야 할  
**산재신청서 작성과 제출**

**02**

Q 직업성 암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상받는 과정이 어렵고 처리기간도 길어지진 않을지 걱정되는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재해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산재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때 노동자로부터 직업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받거나 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절차를 거쳐 신청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한 후 산재 결정통보서 및 문자안내 서비스 등으로 신청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상질병의 경우 역학 조사 등 추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처리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신청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작업공정 종사자 중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8개 상병(백혈병, 다발성 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 암성림프종, 유방암, 폐암)과 석고보드, 슬레이트 등 석면 관련 업종의 폐암, 악성증피종,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암성림프종, 조혈기계질환,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의 폐암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산재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의 업무관련성 판단 시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청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알아야 할  
**산재전문 공공병원**

**03**

Q 치료를 위해 병원은 어떻게 선택하며 어떤 치료를 받나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돋기 위해 산재지정병원이 전국 5,500개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재전문병원이 인천, 안산, 대전, 동해, 정선, 태백, 대구, 창원, 순천, 경기요양병원 등 전국 10여 개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개소하여 서울·경인권에 거주하며 통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까지(2교대 근무) 운영할 예정이고(운영 초기 08:30~17:30),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맞춤형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재활 등 재활 치료를 제공하며(심리재활서비스는 운영 안정화 후 제공 예정),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취업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 절망을 털어내고 희망을 재충전합니다

제조업 K사  
근로자 12년차  
박정석 님

지금의 회사에서 12년째 성실히 일해 온 박정석(가명) 님은 업무 중 중량물을 들고 나르는 일이 잦아 평소 작업 전 스트레칭을 하는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다고 합니다. 그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물을 옮기기 위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는데요, 이후 산재 처리와 재활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박정석 님을 직접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 늘 하던 작업, 예기치 못한 사고의 순간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일해 온 박정석 님은 동료들과의 끈끈한 정으로 지금의 회사에 정착하여 12년째 일해오고 있습니다. 입사 후 10년간은 물류팀에서 일하다가 최근 2년 전부터는 팀을 옮겨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서 직접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일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실제로 자신이 옮기는 중량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무게를 재어보고 자신도 놀랐다고 합니다.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아 무심코 운반했는데 실제로 무게를 재보니 40kg 정도 나가더군요. 그 정도의 무게를 매일 수시로 들어 올리고, 운반하고, 굴리면서 작업하다보니 허리에 서서히 무리가 가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해 11월, 동료들과 함께 작업물을 작업대로 옮기기 위해 중량물을 들어 올리려는데 허리 쪽으로 이상한 느

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박정석 님은 바닥에 누워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현장에 30여 분간 누워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119 안전신고센터에 전화를 했고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 가게 되었습니다.”

## 산재 신청 방법 몰라 ‘120’에 문의

박정석 님은 ‘산업재해’를 말로만 들었지 자신이 직접 겪게 될지 몰랐다면 처음에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하려다 여의치 않아 산재 처리가 가능할지 직접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박정석 님은 우선 120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업재해를 무료로 도와주실 노무사님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노무사님 한 분을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 분이 다시 산업재해를 주로 담당하셨던 또 다른 노무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조언으로 자료를 잘 준비할 수 있었어요.”

## 무심코 찍어둔 작업 동영상, 산재 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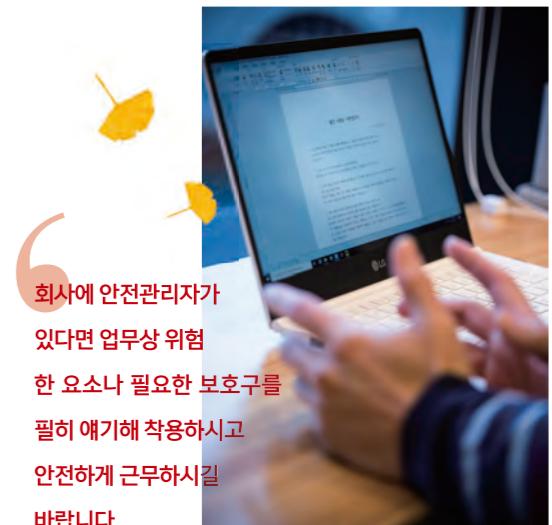
무엇보다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박정석 님이 다치기 전 자신이 하는 일을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어 두었던 작업 동영상이었다고 합니다. 박정석 님이 평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 자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꼼꼼하게 자신의 작업에 대해 정리해 두는 것은 자신의 체계적인 업무 관리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노동자라면 하루 운반하는 중량물의 무게라든지, 쉬는 시간은 몇 시부터 얼마간이었고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서서 근무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기록해 둔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자신이 무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 어려운 시기 극복에 도움을 준

###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내

박정석 님은 지난 3월 산재 인정을 받은 후 배정받은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담당자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쾌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정신상담을 받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고, 재활병원을 서울



의원으로 옮겨 운동을 겸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서울의원의 선생님들은 자신을 다시금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지금의 몸으로 만들어주신 분들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고맙고 미안한 사람은 자신의 아내, 산재를 겪을 당시 박정석 님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고 해요. 아내와 태종의 아기가 걱정되어 더욱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는데 산재로 인정되기까지 4개월간 월급도 없이 어려웠지만 싫은 소리 없이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이에게도 물론 같은 마음이지요.

“산재는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있다면 업무상 위험한 요소나 필요한 보호구를 필히 얘기해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위험하다 싶은 작업은 애기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시고요. 안전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병원 한 켠에는 작은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화에서부터 인문, 사회, 문화, 교양 등 다양한 서적이 1,400여 권 남짓한 가지런히 꽂힌 아담한 책방. 그 책방을 지키고 있는 김창진 님은 34년간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마치고 이곳에서 제3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행복한 중년 김창진 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 함께 사는 기쁨 몸소 가르치는 영원한 교장선생님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김창진 님이 도서관을 찾은 방문객을 환히 웃으며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안색이 훨씬 더 좋아지셨어요. 좋은 생각만 하시고 하루빨리 퇴원하세요.” “갑자기 입원하게 되셨군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는 미소에 책을 빌리러 온 환자 혹은 보호자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화답하며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저는 병원에 계신 환자들을 보호자처럼 곁에서 챙겨드리지 못하지만 이 분들이 책방을 찾았을 때라도 웃음과 용기를 잃지 않게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며 성실히 안내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게는 보람입니다.”

꿈자람책방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중앙병원 2층에 마련한 도서관으로 JDC가 추진하는 중장년일자리사업 ‘JDC이음 일자리 사업’의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사업단의 활동공간을 중앙병원에서 제공하면서 자리잡은 곳입니다. 5평 남짓 작은 공간이지만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잠시 들러 마음을 치유할 곳, 보호자와 방문객들이 잠깐이나마 걱정을 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진 님은 지난해 2월 도내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학교를 퇴직하고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의 교육을 받고 이곳 꿈자람책방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스물아홉 살부터 예순두 살까지 학교에서 보낸 인생 2막의 시기를 성장과 열정의 시기였다면 지금 새롭게 시작된 인생 3막은 감사와 나눔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김창진 님의 하루하루는 그래서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김창진 님의 스케줄러는 매일 매일이 빽빽하게 들어차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사회에 맡고 있는 다양한 직책이며, 참여하는 봉사활동과 수강하고 있는 교양 수업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쭉 나열해보자면 이렇습니다. 30대 후반부터 짬을 내어 비정규학교인 제주등하야간학교에서 해오던 앙학 무료 봉사를 지속해 왔고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생물’ 과목을 특강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에서는 사학연금봉사단원으로 요양원 목욕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한원리 향우회장을 맡아 향리발전에 힘쓰고 있는 한편, 수지침 강의, 제주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주도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과정도 밟으며 자기계발에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꿈자람 책방에 나오고, 토요일은 자진해서 나와 책방 봉사활동을 하니 김창진 님의 하루는 24시간도 모자라겠지요?



내가 받은 행복과 기쁨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나누다 보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될 것이고  
여기에 제가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누는 삶  
부족한 내가 행복한 만큼

김창진 님이 퇴직 후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어쩌다 가능하게 된 일이 아닙니다. 34년 교직생활을 하며 교직을 떠나게 되면 더욱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34년간 교직에 있으며 맑은 직분에 맞는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받은 행복과 기쁨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될 것이고 여기에 제가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퇴임을 해도 과거에 자신이 사장이었고, 국장이었고 교장이었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많지만 자신이 다녔던 회사와 직함을 가능한 빨리 버려야 주변 사람들과 쉽게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김창진 님은 앞으로 30~40년을 더 살아가야 할 중장년들에게 건강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 역시 운동장이나 인근의 오름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고 있다는 김창진 님의 건강한 미소 속에서 밝은 긍정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건강한 중장년의 삶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 긍정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김창진 님이 말하는 재취업 성공 비결 3가지

- ① 봉사와 나눔의 활동을 늘려라, 기쁨이 더 충만!
- ② 이전의 나를 잊어라, 관계형성의 시작!
- ③ 건강 유지를 위해 힘써라, 백세시대!



# 용기 있는 자만이 원하는 'JOB'을 잡을 수 있다



##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 더 컸던 고민

현재 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 신뢰성 있는 제품생산을 위한 품질직무 중 기기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윤 님은 대학 시절 졸업을 1년 남겨두고 막막하던 그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식품생명공학부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던 성경윤 님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영양사를 목표로 하던 것에 비해 식품영양학과는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등 관련 분야가 다양해 진로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편이었던 까닭에 오히려 고민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성공취업 멘토링 수업에서 컨설턴트를 만나면서 자신의 이러한 고민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의 매주 찾아갔어요. 첫 상담에서는 먼저 나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직업선험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등을 진행했고 결과 해석과 상담을 통해 나도 모르던 나를 발견하며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윤 님은 자신의 성향이 ‘새로움’과 ‘성취’를 추구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전공과 관련된 품질관리 일을 하게 되려니 생각했지만 자신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이력서는 빈칸 투성이라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지 고민하다 대학일자리센터의 몇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 목표를 위한 두려움 없는 도전

성경윤 님이 참여한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이었습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멘토링에서 취업까지 이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에 지원하려면 2분

짜리 자기소개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해야 했던 것이 성경윤 님에게는 또 하나의 큰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미션에 무사히 통과하여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일본 요코하마 낫산 자동차 공장, 코트라 무역관 등 산업시설과 기념관을 견학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윤 님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을 얻은 것은 면접 공포증을 없애준 ‘텐더케어(Tender Care)’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긴장하면 나오는 습관과 이를 고치는 방법, 말투, 억양, 자세 등 하나하나를 전문 강사를 통해 교정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성경윤 님은 지금의 직무를 위해 혼자 여러 교육을 찾아다니고 4개월간의 GMP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차별화된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개척하고자하는 자세는 대학일자리센터와의 인연으로 얻는 용기를 통해 갖출 수 있었습니다. 품질관리에서 생산, 위생 등 전반적인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안전전문가’라는 최종목표를 위해 당당히 저만의 길을 갈 것입니다.”



## TIP

### “성경윤 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혼자 취업을 준비할 때는 막연했지만 청년취업두드림, 텐더케어(면접훈련) 등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의 회사 역시 혼자 여러 교육을 찾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취업할 수 있었으니 용기가 취업에 가장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 인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참여
- 인제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식품공학 전공
- 건강기능식품 OEM/ODM 기업 건강기능식품 기업 취업, 기기분석 담당

# 세계지도 위로 나의 꿈을 펼치다



## 세계지도 펴놓고 상상한 세계

현대글로비스의 인도법인 글로비스 인디아에서 근무 중인 손재우 님은 어릴 적부터 세계지도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로 자신을 기억합니다. 세계지도 속 깨알 같은 작은 나라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자신의 동네는 세계 속 어디쯤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넓디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갔습



니다. 그랬던 아이는 대학생이 되어 드디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첫 발걸음을 내디뎠지요.

“3학년 1학기에 휴학을 하고 인도로 2개월간 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마주한 빈민과 가난으로 구호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학교 4학년을 앞두고 손재우 님은 다시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으로 1년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프로젝트 예산관리와 집행, 보건소의 약품 구매 등 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해외취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정보를 얻어 국내 의류기업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인 그 곳에서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세계 각지의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약속된 납기에 제품을 생산하여 출고 및 수출하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인도네시아어도 필요해 틈틈이 언어를 배운 것이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 물류 전문가로 다시 품은 꿈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며 더 전문화된 업무 지식과 경험을 쌓아 세계 곳곳을 연결하는 국제 물류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손재우 님은 물류 전문회사의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다시 월드잡플러스를 찾았고 그곳에서 지금의 회사에 대한 일자리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류 전형과 화상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인도에 있는 물류 전문회사 글로비스 인디아에서 새롭게 일하게 되었지요.

“24살 때 처음 인도를 여행한 뒤, 7년이라는 시간동안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를 지나 다시 인도에 오게 된 것이니 정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물류의 전 영역을 수행하는 만큼, 새롭게 배울 업무도 매우 많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재미있습니다.”

인도 현지의 직원들에게도 현지어인 타밀어를 섞어 쓰며 농담을 하고 먼저 다가가니 그들도 경계를 풀고 친절한 동료들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일의 시작은 그저 내가 하고 싶었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탄자니아 속담에 ‘길을 잊은 것은 곧 새로운 길을 찾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꿈꾸는 해외진출과 전에 대하여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네요. 그 길 또한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릴 적 세계지도를 보며 어렴풋이 품었던 꿈은 여행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고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기회를 잡아 해외취업을 이루는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TIP

“**손재우** 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저는 세상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이 되자는 1차적인 목표,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 목표와 꿈을 쫓아 결국 지금의 자리까지 왔지요. 해외진출의 꿈을 품고 묵묵히 달려보세요.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겁니다.



- 국내 의류 제조기업의 인도네시아 법인 근무
-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1년 활동
- 현대글로비스 인도법인 글로비스 인디아 근무 중

# 16세의 양복점 사장 기술인으로 우뚝 서다

## 갑작스러운 가장의 역할, 똑심으로 버티다

하광운 대표는 1985년 현대전주금형을 창업하고 국내 최초의 금형전주코어를 개발하는 한편, 세계 최초의 무인쇄 도광판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LCD-BLU(Back-Light Unit) 양산으로 규모를 키우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상호를 레이젠(주)으로 변경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2016년 경영권 매각)했으며, 2010년 (주)레이젠 금형사업부에서 분할 설립한 기업 레이몰드(주)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



습니다. 국내 최초로 ER-MOLD(친환경 무도장 Weldless 금형; 전열을 이용해 300도까지 금형 표면을 가열해 균일하게 한 후 약 30초 시점에 15도로 냉각시키는 초고온 금형 온도제어 기술)를 개발하는 등 고유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어릴 적부터 내로라하는 집념과 똑심을 가졌던 하광운 대표의 똑심 리더십이 한몫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외부의 환경에도 부화내동 하지 않고 목표한 바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마침내는 목표에 이르는 집념, 그것이 지금의 하광운 대표, 그리고 레이몰드(주)를 있게 한 힘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에서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시내에서 양복점을 운영하시던 아버지를 어릴 적부터 도왔습니다. 재봉틀도 다룰 줄 알았고요. 그러다 고1 때 아버지가 혈압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덜컥 제가 양복점을 맡게 됐어요. 제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16살의 나에게 양복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형설계 분야에서 45년을 종사해온 하광운 대표의 이력은 흥미롭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16세의 나이에 양복점 사장님으로 되어 학업과 사업을 동시에 병행한 하광운 대표는 그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온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16세의 양복점 사장님에서 66세인 지금, 기능한국인으로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의 대표가 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 절박함의 주경야독,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다

학교에 다니며 양복점을 운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50~60일을 결석해야 했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주경야독해야 했지만 성적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광운 대표는 그 시절 절박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박함이 그러한 집념과 끈기를 만들었나 봅니다. 상황이 너무 절실하니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군요. 이러한 절박함과 죽을 각오로 노력한 경험은 인생을 살면서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 차이가 있지요.”

상업계고등학교를 다녔던 하광운 대표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작은아버지와 상의하다 성적이 좋으면 기술을 배우며 장학금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에 졸업 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정밀기계과로 진학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재봉틀이 잘 다뤘고 재봉틀이 고장 나면 손수 고쳤을 만큼 손재주가 좋았지만 생소한 기술용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3시간을 넘게 자본 적이 없을 만큼 공부에 매달렸고, 그 결과 대학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 대기업 입사, 스스로 실력을 쌓아가다

성적이 우수했던 덕분에 하광운 대표는 학교 추천을 받아 당시 10대 그룹 이자 재계 6위였던 대한전선 금형설계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금성전자와 함께 선두그룹에 있던 대기업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은 하광운 대표는 기술 개발과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설계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의 설계 기술력을 두루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문대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회사에서 전문대학 출신인 하광운 대표는 차별을 겪었습니다. 당시 대한전



선에 비해 명문대 출신 기술자 비율은 적었지만 더 큰 매출을 기록하던 LG전자(당시 금성전자)에 관심을 가졌던 하광운 대표는 1기 경력 공채로 회사를 옮기며 LG전자 오디오사업부 제품 설계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66세 기술인, 16세 소년사장의 뚝심으로 나아가다

하광운 대표는 그곳에서 신입사원 교육에 사용할 약 100페이지 분량의 설계 교본을 만들기도 하고, 제품 설계자로서 제품의 기술적 특징과 장점들을 영업사원들에게 설명해주어 매출을 올리는 등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았지만 그곳에서 역시 학력에서 오는 진급의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광운 대표는 회사를 나와 기술이 힘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회사를 만들고자 창업하기에 이릅니다. 하광운 대표는 자신에게 그랬듯 직원들 스스로

“재직자 훈련을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임원 출신의 고문을 영입하여 임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많은 고문의 지도와 조언은 실제 업무에서 임직원의 실력 향상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시작되는 일과 학습 병행의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고숙련일학습병행제인 P-TECH를 통해 주중에는 회사, 토요일은 학교 수업을 통해 학위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도전하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하광운 대표는 자신의 목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 도입한 스마트공장을 더욱 시스템화하여 견고히 완성하고 싶다는 그 목표를 향해 16세 양복점 소년사장이 가졌던 뚝심으로 한 발 한 발 우직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 아이와 더 많은 시간 ————— 함께 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더 없이 소중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일을 하는 부모들의 대부분은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지요.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 출산에 아빠가 함께 할 수 있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충실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그것이죠. 행복한 아이와 부모를 위해 달라진 이들 제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정리 편집부



###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로 늘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3~5일(최초 3일 유급)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90일 내에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져 출산 가정은 상황에 맞게 출산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 받아요

유급 휴가기간 확대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일까?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 5일

####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 급여 신청은 언제일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분할 사용 시에도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됐어요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b>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b>	

##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해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하루 1시간 단축이 허용되었고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산정하기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을 합산합니다.

[월 250만 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200만 원 \times 5/40) + (150만 원 \times ((40-20-5)/40)) = 812,500원$$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

5

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 X

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 원을 상한액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함)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함)



##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 위한 제도 모르는 사람 없도록 해요



우리사회는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하며 아이가 행복한 사회, 모성이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고민해왔는데요, 아직도 그 제도들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안 되겠지요?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최근 달라진 제도들을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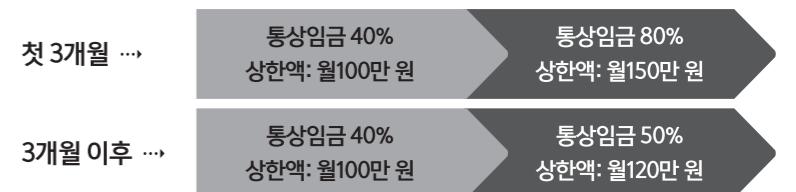
### ① 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 위한 출산전후휴가급여 확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신설(2018년 5월)하였습니다. 또한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 ② 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위한 제도 개선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2배 오르고, 급여 상한액 역시 인상(100→150만 원)되었습니다. 또한 3개월 이후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와 상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인상(통상임금 40→80%)되었습니다.



### ③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7월 이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만 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이와 아빠의 워라밸을 응원합니다.



# 우리 동네는 일자리 천국

진화하는 지역일자리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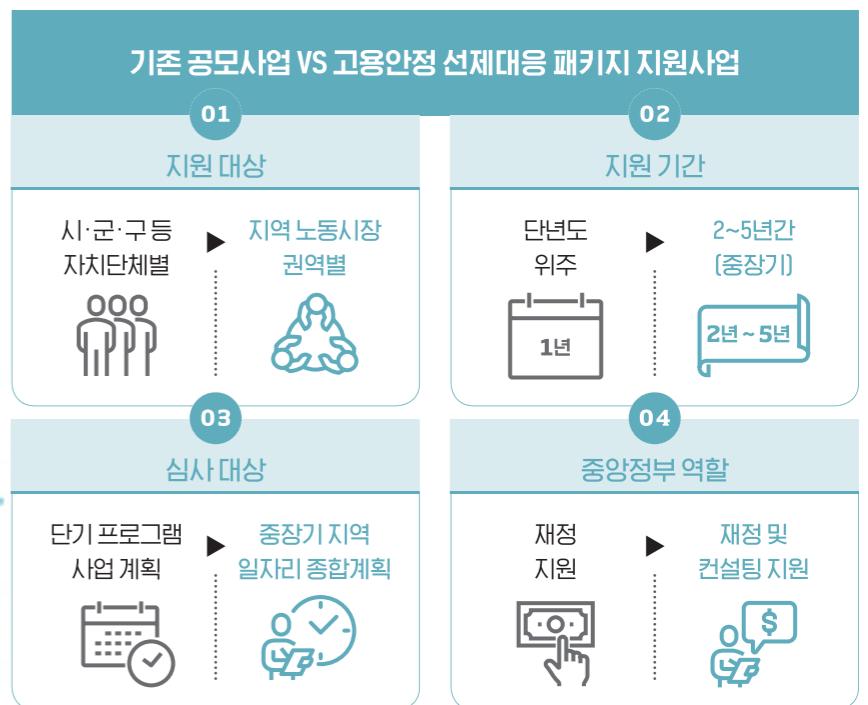
지역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및 컨설팅 지원,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시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이 발표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년도 지역 고용정책의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는데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이를 통해 내년도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편집부

## 지역 주도형 중장기 일자리 사업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 노동시장에 고용위기가 발생한 후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사후적 대응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진 지역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역 노동시장 권역별로 지원 대상 선정

그동안 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군구 등 지방단체별로 이뤄졌는데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이 지역 노동시장 권역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일자리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문에 현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적용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정량·정성요건을 충족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특히, 광역시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일자리 권역, 산업정책과의 연계 가능성과 훈련기관·고용서비스 기관 등 지역고용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정량·정성요건을 충족하는 기초 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 중앙과 지방 간 협업 확대하고 컨설팅 지원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고용위기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된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이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때 지역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통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되는데 패키지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혁신프로젝트도 상호 연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권역별로 구성된 일자리정책 자문단 인력을 공유하고, 전문가-자치단체를 매칭하여 줍니다.

###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이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자치단체·지방관서의 추천을 받아 권역별로 5~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 일자리계획 수립과 성과관리를 지원합니다.

## 심사·선정·평가로 지역의 성과목표 달성을 지원

지역 노동시장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컨설팅과 평가를 통해 지역의 성과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심사 및 선정은 지원의 시급성·필요성, 사업의 효과성·실행 가능성,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일자리 창출 목표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지원대상이 가선정됩니다.

##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다음 해 지원 규모 결정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계획 컨설팅'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보완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자치단체 간 사업협약이 체결되는데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기간은 자치단체가 2~5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매년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데 평가결과 '미흡' 시 익년도 예산 최대 20% 삭감, '매우 미흡' 시 최대 30% 삭감, 2년 연속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시 지원 중단 등 익년도 지원규모 결정에 반영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지역일자리사업은 지역 노동시장 권역에 대한 고려가 쉽지 않았고, 단년도 프로그램 사업 위주, 재정 지원 치중 등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 밀착형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점심 회식 메뉴 정하기

그림 정민영



#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채용박람회」개최

고용 회복 중인 조선업에 직업훈련 투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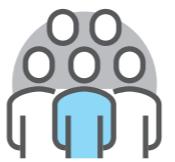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채용박람회」가 9월 23일(월) 한국방송공사(KBS) 울산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조선업황과 고용상황의 회복이 뚜렷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선업의 고용 회복 분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채용박람회가 마련되었으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기계·철강 분야의 9개 공동훈련센터와 9개의 협약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지원 이전부터, 조선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하여 왔는데 이제 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직업훈련에 계속적인 적극적 투자와 혁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 전체 직업훈련 분야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약 17% 늘린 2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질적인 혁신을 병행하여 기업의 수요와 요구가 훈련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439억 원(정부 예산안 기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컨소시엄 훈련(대중소 상생형) 기반의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 사업에 대한 설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규모 기업이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 중 성과가 검증된 기관이 중심이 되어 협력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며, 정부는 공동훈련센터 30여 개소를 지정하여 협약 중소기업의 직무분석과 훈련 로드맵을 지원하는 등 실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계기로 조선업 회복에 맞춰 인력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2019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올해 11번째 대회, 혁신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의 산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9월 27일 「2019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9년에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 대회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구상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발굴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생각들이 창업과 육성 과정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등용문이자 혁신 성장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번 경연대회에는 4개 부문에서 총 903팀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선대회 37팀의 수상자에게는 총 2억여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글로벌성장」 부문 대상에는 국무총리상이, 「청소년」 부문 대상을 비롯해 12팀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전국대회 입상팀에게는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금융,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 이후에는 향후 투자 유치 등의 후속 지원을 위해 임팩트 투자사와 참가자간 만남의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소셜벤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 중심 경제,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분야별 맞춤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소셜 벤처와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9. 10. 1.  
▶ 문의 : 노사관계법제과  
박진혁 사무관(044-202-7395)

정부는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이를 비준하기 위해 지난 주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한 데 이어, 관련 법률인 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심의·의결한 것입니다.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그간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2019.4.15.)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여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제5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 17개 시도 대표 선수들 6개 경기장에서 진행



▶ 2019. 10. 4.  
▶ 문의 : 작업능력평가과  
김승배 사무관(044-202-7291)

기능 강국 대한민국의 명맥을 이어갈 미래의 주역을 가리는 「제5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0월 4일(금)부터 10월 11일(금)까지 8일간 1,847명의 선수들과 1만 3,000여 명의 관계자,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용 로봇 등 50개 직종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개회식은 10월 4일(금) 부산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17개 시도 대표 선수들의 입장을 시작으로 정정당당한 경기를 다짐하는 대표 선수 선서에 이어 개회 선언 및 '홀로그램 터치 퍼포먼스'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능경기'를 목표로 '선수 중심, 시민 중심의 현장 체험형 대회'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또한 '기술, 또 하나의 미래'라는 표어로 진행되면서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기술혁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수한 숙련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고 기능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 확대라는 기대감을 만들었습니다.

##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 성장지원센터 개소 연내 전국 10곳 성장지원센터 운영 예정



▶ 2019. 10. 1.  
▶ 문의 : 사회적기업과  
정누리 사무관(044-202-7430)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2일(수) 광주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溫) 광주')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는 창업 초기의 사회적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성장지원센터로 창업 초기의 사회적기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에 입주하는 50개 기업은 최대 2년간 사무 공간과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17년에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8곳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센터는 이번에 「소셜캠퍼스 온(溫) 광주」가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총 9곳으로 늘고 올해까지 총 10곳의 성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전국 각지의 (예비)사회적기업가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만들고 창업·판로·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800팀의 창업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공동 판매장을 조성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통합 기반(플랫폼) 등을 운영하여 국민에게 사회적기업 물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 2019. 10. 7.  
▶ 문의 :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044-202-7712)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0월 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합니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 원석을 찾아내 보석으로 탄생시키다

행복나무(주)는 사회적경제기업, 스타트업, 지역작가 제품을 발굴하여 브랜딩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상생 유통플랫폼으로서 지역에 숨어있는 원석들을 찾아내 가치를 부여하고 세상에 소개하는 행복나무(주)를 소개합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희망을  
가치로 바꾸는 플랫폼  
**행복나무(주)**



### 공감, 공유, 공생의 행복나무

행복나무의 직원은 총 3명, 윤희재 대표를 포함하면 총 4명이 경영지원, 기획, 디자인, 마케팅 등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작지만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은데요, 제주에 위치한 행복나무(주)는 제주사회적경제기업, 스타트업과 브랜딩, 패키징 디자인 협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행복나무’라는 회사명에도 공감, 공유, 공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윤희재 대표는 말합니다. “기업의 감성과 가치를 공감하고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 되고자 회사명도 ‘행복나무’로 정하게 됐습니다.”

## 지역 일자리 만들고 사회적 인재를 키우는 기업

행복나무(주)는 사업 초기,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자 감귤 농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판로가 어렵지 않은 만큼 생산만 잘 이뤄진다면 수익창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애인 자녀의 노동에 대한 부담을 가진 부모와 가족들이 있어 지속적인 농장 운영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운영했던 감귤 농장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강구했습니다. 현재 청년 및 취약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접목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나무(주)에서는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행사 기념품으로 나눠줄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기념품 중에는 장애인 학교 학생들이 직접 포장한 제품이 상당수입니다. 이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만들고 졸업하면 사회의 경제 일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역 청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하여 혼자만의 성장이 아닌 이웃을 생각하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행복나무의 사업은 ‘함께’ 해야 가능한 일들

행복나무(주)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제주지역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제주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업해 제주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 동식물 등을 담은 굿즈를 개발·제작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7명의 서포터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제주를 알리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사회적경제기업, 스타트업을 더 잘 알릴 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콜라보 제품으로 ‘만덕상단’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제주사회적경제기업,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이들의 기업 철학과 사회공헌 방식을 함께 공유하며 지금 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도 행복나무(주)가 추진한 일들 중 기억에 남는 뿐듯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나무(주)는 앞으로도 함께 공감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운영이 미숙하고 수익창출이 어려운 구조의 사회적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기업들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돋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활동하려고 합니다.”

행복나무(주)는 사회적경제기업, 스타트업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나무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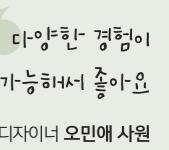


## Mini Interview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보람 느끼요  
- 마케팅·관리 고건 사원

행복나무(주)에서 일한지는 이제 열흘이 조금 지났어요. 사회 기여 사업을 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일하는 보람이 배가 되니까요.



다양한 경험이  
기여하면서 좋아요  
- 디자이너 오민애 사원

이전 회사의 디자인 경력도 있지만 행복나무(주)에서는 패키지에서부터 제품 디자인 등 사업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하게 돼 일하는 재미를 느껴요.

# 오랜 준비로 혁신한 임금체계, 의료서비스 품질향상으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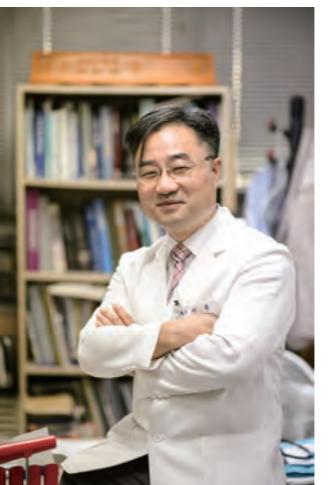
광주 해피뷰병원

## 병원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 기준 필요

전남 광주에 위치한 해피뷰병원은 2002년 광주삼성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하여 2013년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치매 분야 예방검진, 평가와 치료, 관련 전문가 교육, 가족교육, 대중교육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전남광주의 대표적 치매병원이자 노인성 질환 병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5~6년 전 해피뷰병원은 지방 병원들이 겪는 고질적 문제인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업무 피로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워라밸은 물론,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조차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집이 멀어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들을 배려해 병원에서 1~2분 거리에 원룸을 렌트하여 약 3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직원들이 다니고 싶은 직장, 일하고 싶은 병원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훈 대표 원장과 임연수 관리이사는 설명합니다.

“병원은 그 어느 일터보다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 확실한 기준이 없다면 급여의 차이로 인한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을 함에 있어 자존감으로 연결되지요.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의지에서 노사발전재단에 임금개선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지방 병원으로서 인력수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체계 개선을 실시한 후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능동적인 업무 분위기로 다시금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 해피뷰병원을 찾아가 봅니다.

정리 한경희 사진 스튜디오



## 전 직원이 모두 직접 참여한 직무 기술서 작성

해피뷰병원은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원의 정규 간호진이 간호는 물론 간병 서비스까지 24시간 도맡아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환자나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건복지부 이를 제도화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해피뷰병원은 급성기 노인 병원으로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이 급선무였습니다.

“컨설팅에 앞서 병원 차원에서 이미 전 직원의 직무기술서 작성률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경력과 직급, 업무내용, 근무시간, 자격증 등을 직접 기록하게 하여 이를 기반으로 각 직원의 직무 적합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직군별 자존감 회복을 위해 해피뷰병원은 먼저 통상임금 조절을 결정했고, 직무 분석을 통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 직무별 역량평가를 통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직무기술서를 기준 삼아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만들어내고, 능력개발과 직장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 근무환경을 바꾸는 다양한 시도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도입하였습니다. 직원들이 개인사정에 따라 낮·밤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퇴근 시간도 종전보다 30분 당겼습니다. 병원 특성상 출근해야 했던 토요일도 격주 휴무로 바꿔 개인의 워라밸과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은 여성 직원이 90% 이상이라 현재 육아휴직자가 15명 정도있어요.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신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가능한 일이었죠.”

눈에 띠는 변화는 이직률을 감소였습니다. 37%에 이르던 이직률은 임금체계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이후 25~26%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무가 안정되니 당연히 서비스의 질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임연수 관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이번 계기로 직원들의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가 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얼마 전 우리 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인증인데 통과했어요. 인증을 받기 위해 수개월 간 준비한 직원들에게는 보람이 되고 병원으로서는 무엇보다 수가 가산을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지요.”

지난 7월 1일자로 종합병원으로 승인을 받은 해피뷰병원은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임금체계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임금체계 개선은 다시 한 번 급여 인상요인이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 해피뷰병원은 직원 포상 등 복지혜택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피뷰병원은 직원이 일하기 좋은 병원, 환자가 행복한 병원으로 계속해서 진화 중입니다.

## Mini Interview



김종숙  
감염관리실 실장

병원 개원하면서 오게 됐으니 해피뷰병원에서만 18년차네요. 해피뷰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결혼해서 어느덧 초6, 중1 남자아이 둘을 둔 엄마가 됐는데 요즘 근무시간이 30분 단축되어 질풍노도의 시기인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챙길 수 있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주영  
환자안전관리실 실장

7살, 초5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격주 토요일에 쉬면서 가족들과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어요. 둘째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터라 육아휴직도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일터의 만족도가 성장의 힘이 되다



소통이  
에너지가 되는 회사  
—  
**소프트캠프(주)**

**소프트캠프(주)**는 문서보안, 영역보안, 키보드보안 등 보안솔루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사 사무실이라고 하면 적막한 분위기의 조용한 사무실을 떠올리기 쉽지만 **소프트캠프(주)**의 일터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동료들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 소통의 즐거움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곳, **소프트캠프(주)**를 찾아가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J

## 워라밸, 회사와 근로자의 상생의 길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소프트캠프(주)**는 우리나라 1세대 보안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설립되어 2014년 12월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고 올해 10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KB제11호스팩과의 합병상장 예비심사에서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올해 12월 신주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 신장세와 더불어 성장의 기반을 다져가는 **소프트캠프(주)**는 2016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회사의 복지와 워라밸 문화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고 인사총무팀 정성민 팀장은 설명합니다.

“당시 회사는 수익성 개선과 매출 증대를 위해 전사 조직 개편에 돌입했습니다. 기업이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핵심인재 양성과 장기재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도모할 방안이 무엇인지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상생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가능한 회사 차원의 지원은 무엇일지 고민했던 것이 저희 회사 워라밸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 직원들의 만족도를 고려한 워라밸

회사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 **소프트캠프(주)**가 고민한 복지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일터는 어찌 보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일터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건강과 관련한 복지혜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직원들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악해지게 마련인데요, 이럴 때 곁에서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큰 힘과 위로가 되듯 선택진료를 제외한 병원비와 약제비, 독감예방주사 등을 지원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단연 호응이 높은 워라밸 제도는 선택적 복지포인트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는 직원들이 매해 지급 받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명절 선물을 이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각자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명절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명절 선물로 3~4가지 상품 중 1개를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상품 구성과 한시적인 지원으로 만족도가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 직원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로는 여행, 문화, 의료, 관광, 도서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력사를 구축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소프트캠프(주)는 이러한 혜택들이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며 상생의 길을 만든다는 생각에서 고민하였고 형식적인 제도보다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고려하며 워라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직원, 더 나아가 가족을 생각하는 회사

가족친화기업을 지향하는 소프트캠프(주)는 가정의 달에는 직원들에게 아쿠아리움이나 영화예매권 등의 티켓을 제공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해마다 다른 분야의 티켓으로 직원당 2매씩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직원 가족들을 초대하여 야외 시무식 등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괌으로 떠나는 전직원 해외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족동반도 지원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대감도 매우 클 수 밖에 없겠는데요, 회사 차원에서도 창립 2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직원의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 만큼 보다 의미 있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차부장급 임직원 중에는 장기근속자들이 많습니다. 아빠가 다니는 회사, 남편이 일하는 곳은 어떤 분위기인지 이번 기회에 보여주면 직원들의 사기도 오를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워라밸과 관련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캠프(주)는 소셜소통 ‘뭉치면 쓴다’를 통해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5명이 모이면 인당 3만원, 10명이 모이면 인당 4만원 등 지원 기준을 정해 블링, 캠핑 등을 할 수 있도록 직원 간, 부서 간 소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의 모임인 ‘여우회’도 사내 10% 정도로 소수인 여직원들을 배려한 지원제도입니다.

회사의 성장발전은 좋은 업무환경과 충분한 지원제도 그리고 임직원 개인의 만족도 높은 삶의 질에서 성과가 극대화 된다고 여기는 소프트캠프(주)는 임직원의 워라밸 만족도가 곧 회사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색다른 지원제도를 고민하며 정부지원정책에 귀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 Mini Interview

가정의 달,  
가족 알리세  
뿌듯했어요



이승우  
DS구축팀 과장

4살과 2살 아들 2명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가정의 달에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티켓을 이용해 온 가족이 수족관에 다녀왔는데 아까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가족들에게도 이런 지원들이 회사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회사-밖-  
동료들과-의 모임도  
즐거워요



김준용  
기술지원팀 대리

소셜소통 모임 주선을 해서 직원들과 낚시도 다녀오고 캠핑도 다녀왔어요. 개발자로 일하다보면 외로울 때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직원 간의 소통이 활발해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과의 이러한 소통이 너무 즐겁습니다.

# 기업 발전의 새 역사 노사 소통으로 시작된다

영진약품(주)



사람이 살기 좋은 집은 별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합니다. 20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영진약품의 노사형통 스토리는 막힘없이 잘 통하는 ‘바람’을 닮아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영성과까지 상승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니 신바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 이지연 / 사진 스튜디오J



## 전략 대신 ‘진심’ 올린 협상 테이블

1962년 전문의약품 제조·판매기업으로 출범한 영진약품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국내 대표 제약회사입니다. 2004년 KT&G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며 임직원 630여 명을 둔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일방적인 영업 정책 변경 등 노사 간 소통의 부재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집처럼 꽉 막힌 소통의 부재는 임금협상 노사갈등 상황과 경영위기 등을 초래했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갈등이 2018년 3월, 이재준 사장이 취임 하며 변곡점을 맞았고 이후 회사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랜 갈등이 한 사람의 등장으로 단번에 해소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세로 꺼내기 힘든 가정사를 진솔하게

들려준 이재준 사장의 취임사와 ‘함께 잘 되어야 한다’는 노조 측의 마음이 만나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었습니다.

“영진약품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자로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 노사 간 회사의 목표를 공유하고 잘못된 시스템과 실적을 개선하여 하나 된 영진약품의 모습을 이끌어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노사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관행대로 노사 대화는 과도하게 전략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영진약품은 공식적인 노사협의회, 임금협상, 단체협상 테이블에서 경영상황 및 구성원 요구사항에 대해 전략적인 모습을 배제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노사관계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소통을 토대로 한 기분 좋은 변화

구성원 모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영진이 본사를 넘어 각 공장과 연구소, 지점 등을 방문하는 타운홀(Town Hall) 미팅을 열었습니다. 영진약품의 경영현황 뿐만 아니라 귀감 사례를 소개하고, CEO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회사의 소식과 가치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들도 개설했습니다. 인트라넷에 ‘부페신고, 고충처리, 제도개선’ 창구를 만들어 누구든 쉽게 제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등 회사 곳곳에서 ‘소통’을 주제로 한 혁신이 이뤄졌습니다. 나아가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와 중앙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해 근무환경 관련 건의사항과 장기적인 정책 관련 논의 창구를 분리하고, 노사발전재단의 노사갈등해결 프로그램, 노사상생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노사 간 파트너쉽 형성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4월에는 주52시간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노사TF팀을 구성해 자체 모의 근로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변화된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노동정책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부문에 적합한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을 통해 인원을 보충하는 등 변화하는 근로 환경에 대비해 노사가 함께 점검하고 고민함으로써 지적, 위법사항 없는 노동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남성 중심적인 제약회사의 특성을 탈피해 역량 중심의 인력채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 21%였던 여성인력 채용 비중이 2018년 42%로 늘어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변화는 절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손뼉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듯, 노사의 부단한 노력이 지속될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이뤄지는 법입니다. 영진약품 노사는 모두가 잘 되는 ‘상생’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따라 수많은 변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 굳건하고 긍정적인 노사문화 구축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을 받아 직책 중심의 연봉체계로 개편하고,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으로 개선하는 등 달라진 영진약품의 근무 분위기 속에서 경영성과 또한 창립 이래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게 영업관리실 우선육 과장의 설명입니다.

“노사가 활발히 소통하며 다양한 개선책과 약속들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모든 상황이 선순환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해 매출도 영진약품 창사 이래 최고액인 2,000억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 뜻 깊습니다. 매일이 요즘 같았으면 합니다(웃음).”

영진약품은 지난해 초 불어 닥친 위기를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해보다 더 나은 경영성과를 기대할 만큼 지표상 좋은 결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진약품은 다양한 경영상황에서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굳건하고 긍정적인 노사문화 내재화를 목표로 오늘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 Mini Interview



김병규 실장  
인사실

노사문화 내재화는 노동조합과 회사 모두 생각과 행동이 바뀔 때 가능합니다. 다행히 영진약품은 경영 위기와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노사 모두 변해야한다는 뜻에 편견 없이 공감했고, 공식적인 노사갈등해결 프로그램, 노사상생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뿌듯합니다.



원선욱 과장  
영업관리실,  
영진약품노동조합  
수도권분회장

지난 여름휴가를 해운대 유명 호텔로 다녀왔습니다. 노사가 협의해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확장함으로써 하계휴양시설 이용권을 임직원에게 지원하게 되었고 그 행운이 제게 돌아온 것이었죠. ‘사위 덕에 호강한다’는 장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진약품 구성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1월 역시 전국에서 다양한 취업·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 박람회에서는 알찬 채용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찍부터 기업들의 참여를 신청 받고 있는데요, 행사 전에 미리 신청서를 받고 서류접수를 하는 박람회가 많은 만큼 자신이 원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미리미리 살피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편집부

맞춤형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 취업·일자리 박람회



### 2019년 경북형 산·학·관 김천시 일자리 박람회



구인·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2019년 경북형 산·학·관 김천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현장면

접 및 상담이 이뤄지는 열린채용관을 비롯해 취업 준비 상담인 공공기관 취준생 멘토링이 진행되고 직업심리, 이미지메이킹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14:00~17:00

장소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주최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고용노동지청

### 지스타 2019 게임기업 채용박람회



게임산업 분야 구직자 대상으로 채용박람회가 열립니다. 게임 관련 기업 인사담당자이 기업 및 채용인력 등을 설명하고, 기업별 부스를 설치하여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간 네트워킹 등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11월 5일까지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하며 서류전형→AI면접→현장면접(지스타2019 채용 박람회)-2차 면접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시 2019년 11월 16일(토) 10:00~18:00

장소 벡스코 제2전시장

주최 한국게임산업협회

### 2019 아세안 해외취업 박람회



아세안 국가로의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아세안 해외취업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해외 구인 기업들과 구직자간 직접 면접이 진행되고, 아세안 국가별로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

다. 해외 취업을 위한 영문 이력서 & 인터뷰 컨설팅, 취업 특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눈여겨볼만 합니다.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10:00~17:00

장소 부산시청 1층

주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 2019 광명시 일자리 한마당



광명시가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박람회 '광명시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70여 개의 유망 기업체의 채용관이 운영되며,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광명시의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해 참가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취업 컨설팅이나 플리 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됩니다.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13:30~17:00

장소 광명시민체육관

주최 경기도 광명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 2019 경기도 청년채용 박람회



우수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의 장, 청년 구직자에게 경쟁력 있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는 소통의 장이 될 '2019년 경기도 청년 채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현장에서는 분야별 우수기업 채

용면접 및 공개채용 설명회와 채용관련 서류작성, 이력서 자기소개 첨삭 등 취업을 돋는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펼쳐집니다.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10:00~17:00

장소 동서대학교 스튜던트 플라자 3층

주최 동서대학교, 부산벤처기업협회

### 2019 군포시 청년 채용박람회



기업들과 함께 능력 있고 열정 넘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군포시 청년 채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취업 컨설팅, 면접 체험 등 부대 행사뿐만 아니라 약 15개 기업이 직접 현장에서 1:1 면

접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청년 친화기업 및 우수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질 높은 채용박람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시 2019년 11월 22일(금) 14:00~17:00

장소 군포시청 대회의실, 별관 회의실

주최 경기도 군포시

#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기업 경영을 돋는

## 사업서비스 분야 新직업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조직관리에 있어 자문이 필요하거나 경영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이럴 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겠지요. 기업 성장을 돋는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미래를 이끌 새로운 직업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리 편집부(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미래가 온다 새로운 직업이 뜬다>, 워크넷)

01

### 지속가능경영전문가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주목 받으면서 많은 기업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경영전문가라는 직업이 등장했는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기업 윤리, 사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하는 일을 하며 기업체, 컨설팅 회사, 협회 등에서 활동합니다.

02

### 기업재난관리자

기업의 재난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복구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고대응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난은 분야를 막론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관리 지식을 바탕으로 전자, 전산, 정보통신, 토목, 건축, 기계, 산업안전, 화공, 전기, 도시공학, 지질, 환경 등 분야별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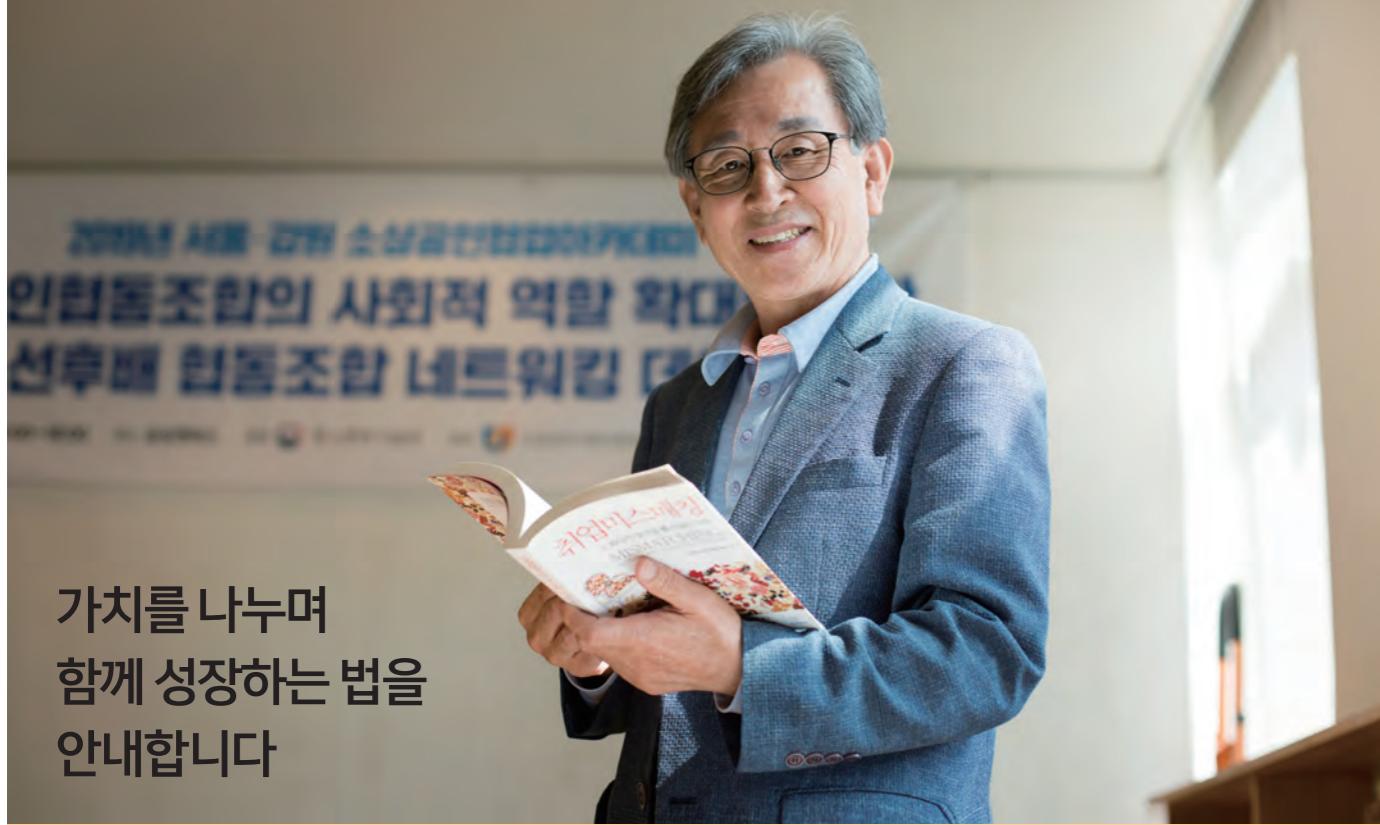
### 공공조달지도사

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조달업무 위탁 등을 대행하는 공공조달지도사는 사회적 약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국가 지원정책과 제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진입전략을 제공하고 이들 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체계적·전문적 조달전략 제공과 견적서, 인력구성, 서류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04

### 협동조합코디네이터

협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합 결성 후 생길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담하고, 경영 노하우, 협동조합 형성과 운영 등에 대해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협동조합코디네이터는 협동조합이 성공적인 기업체로서 함께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유익한 조직,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역할을 합니다.



## 가치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박남수** 협동조합코디네이터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공동체' 이사장)

**박남수 님이 참여한 협동조합코디네이터 과정**



- 협동조합 전문가과정 위탁기관인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의 서울대학교 협동조합 경영전문가과정(총 10주) 이수 후 협동조합코디네이터 민간자격증 취득
- 수강 과목: 협동조합의 조직관리, 협동조합의 마케팅, 경영전략, 협동조합의 재무회계, 법률 대응,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개론, 협동조합 실전경영 사례 분석 등

### 시대적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일

협동조합코디네이터를 취득한 지 만 4년이 된 박남수 님은 협동조합코디네이터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좌지우지 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사회 불안과 갈등, 소외가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가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박남수 님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협동조합코디네이터를 목표로 일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길의 하나로 협동조합의 정신과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코디네이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 이끄는 현장형 협동조합코디네이터

박남수 님은 협동조합의 내부적 갈등이나 경영상의 어려움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일이나 협동조합의 해산 및 파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이기도 한 박남수 님은 협동조합교육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로서 학교협동조합과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를 협동조합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상담·교육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꿈의학교를 운영하며 열린 교육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진로와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사이공(사회적경제를 이끄는 공동체) 이사장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

제에 대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그 자신도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매장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보람 갖는 직업

박남수 님은 협동조합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가진 매력을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낼 수 있고, 개인의 의식 변화와 사회구조의 틀을 바꾸는 혁명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코디네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나 협동조합 지원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자격증 취득 후 5~6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으며 식견을 넓혀간다면 훌륭히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남수 님은 앞으로 사회적기업 방송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애쓰는 협동조합 운동가, 사회적경제 활동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재능 기부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개하는 미디어 활동으로 사회적경제의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박남수 님, 그 소망이 실현된다면 우리사회는 1도씨 더 따뜻해지겠지요?



# 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Q 회사 선배가 월급날만 되면  
자꾸 한 턱 내라고 합니다.  
술자리를 계속 강요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배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직접 피해자를 고용한 사용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원칙이지만,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을 불문하며, 괴롭힘의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으며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한 행위 요건의 핵심 요소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상 세 가지이며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에서 입사 선배의 위치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하는 경우 시말서 등을 쓰게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한 범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피해근로자는 직접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자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3). 만약 사용자가 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Q 1년간 직원을 육아휴직 보내고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임시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어떤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고용기간 동안 조건에 따라 최대 월 6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구체적인 조건은 첫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대체인력 고용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무

관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1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60만원(인수인계 기간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인수인계 기간 동일)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신청은 ①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



# 가난을 메꿔주는 직업, 땀장이를 아시나요?

손쉽게 물건을 버리고 새로 살 수 있는 요즘이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용하다 구멍이 난 솔이나 냄비, 세숫대야는 결코 쉽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더 예울 구멍이 없을 때까지 메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요. 땀장이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는 날이면 집집마다 구멍 난 세간살이를 들고 반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최고의 용접공, 땀장이를 소개합니다.

정리 편집부



## 그 시절 최고의 ‘금손’ 등장이오

“빠께스를 녹슬어 못쓰게 하는 것은 주부의 수치입니다.” 1935년 9월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의 한 대목입니다. 그 당시 신문에는 늘 땀장이 없이도 각종 세간살이를 때워 쓰는 방법이 실리곤 했지요. 불에 타 못 쓰게 된 냄비를 그냥 버리는 일이 큰 낭비처럼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솔 때워요” 하는 외침과 함께 등장하던 땀장이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금이 가거나 뚫어진 그릇을 때우는 일을 업으로 삼는 땀장이는 절약이 몸에 배운 옛 시절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반갑고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단단하고 두꺼운 무쇠 솔에서부터 양은 냄비에 이르기까지. 풀무와 화로, 땀인두만 있으면 못 고치는 물건이 없었지요.

## 장인정신이 담긴 땀장이의 기술

땀장이가 물건을 뚝딱 때우는 모습은 마을 어린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 나 재미있는 눈요기였습니다. 때워야 할 물건도 요강에서부터 세숫대야, 냄비, 주전자에 이르기까지 모양과 재질도 저마다 다양해서 이번엔 또 어떻게 감쪽같이 고쳐낼지 기대감이 가득했지요. 넓고 평평한 터에 자리



설거지통 물통 구멍이 뚫어졌을 때 얼른 땀장이한테  
주지 못해서 물이 샌다고 버려둘 수는 없으니  
쇠단추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1935년 5월 23일 동아일보

를 잡은 땀장이는 고쳐야 할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본 후 준비한 땀납을 뚫어진 구멍에 맞추고 인두로 녹였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막히면 납이 평평해지도록 망치로 수없이 두드려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었죠. 일이 끝나면 땀질한 곳에 된장을 발라 문질렀는데요. 된장을 바르면 납의 표면이 산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반짝반짝했다고 합니다.

## 경제발전과 함께 역사 속으로

땀장이가 어느 시점에 사라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더는 냄비를 구멍 날 때까지 사용하는 일이 점차 사라졌고, 땀장이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죠. 1980년대에 들어면서 공업 분야의 발전과 함께 땀장이 대신 용접공이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땀장이의 역할도 동네 철물점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대장간이 남아있지만 그릇이나 주전자, 냄비를 때우는 풍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멍 나버린 냄비나 그릇을 때우고 또 때워 사용해야 했지만 넉넉지 않은 세간살이가 결코 부끄럽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땀장이의 인기는 절약이 몸에 배어있던 옛사람들의 현명한 소비습관이 만들어낸 직업이었지요. 땀장이에서 용접공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쇠붙이를 두드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의 가치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 1400년대

이후 등장

무쇠 솔이 사용되기 시작한  
삼국시대 이후  
주철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

## 1980년대

즈음 사라짐

시대 변화에 따라  
용접공으로 변화



## 여행

## 여류작가와의 만남



경주 동리목월문학관  
VS  
하동 박경리문학관



동리목월문학관  
경북 경주시 불국로 406-3  
박경리문학관  
경남 하동군 약양면 평사리길 79

농익은 가을, 한국 문학사의 깊이를 완성한 여류작가와의 만남은 어떨까요. 동리목월문학관은 경주 출신 소설가 김동리와 시인 박목월의 족적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아담한 규모의 전시관입니다. 두 거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들이 전시돼 있어 한국 문학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죠. 하동에 위치한 박경리문학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 민족의 혼이 느껴집니다.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판댁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무려 26년간 집필했던 박경리 작가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 늦가을에 편 문학여행

바스락 거리는 낙엽 소리와 선선한 듯 쌀쌀한 듯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없는 공기. 흘뿌려진 은행 열매처럼 완숙의 미가 절정으로 치닫는 11월입니다. 이번 가을은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숙성돼 완성된 것일까요. 완숙한 가을, 숙성된 시간들이 돋보이는 문학과의 조우가 시작됩니다.

정리 편집부

체험

역사로 만난 우리들의 시간

2019 말모이 기획전시  
VS  
대전문학기행

2019 대전문학기행  
참여자 모집



2019 말모이 기획전시



대전문학기행



전북 익산시 가람문학관에서 말모이 기획전시가 열립니다. 격동의 세월을 보내며 갖은 수난을 겪었던 조선어학회사건 33인을 조명하는 자리인데요. “말은 정신, 글은 생명”이라고 강조했던 우리 선조들의 흔적은 물론, 3대 시조집 <청구영언>, <해동가요>, <가곡원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 문학기행도 열립니다. 코스는 모두 3개로 신채호 생가지, 박팽년 유허, 김만중 문학비, 정훈선생 옛집터 등을 둘러볼 수 있으며, 종고생 및 성인 대상으로 나누어 3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눈높이에 맞게 문학 탐방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19 말모이 기획전시  
전북 익산시 여산면 가람길 76 (~11/30)  
대전 문학 기행  
대전문학재단 홈페이지([www.dcaf.or.kr](http://www.dcaf.or.kr)) 신청(~11/22)

## 도서

## 작가들이 사랑했던 공간



서울 문학 기행  
VS  
작가님, 어디 살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에게 ‘서울’이라는 공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방민호 서울대 교수가 한국 문학사 대표 작가 10인이 남긴 시와 소설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의 의미를 한 겹 한 겹 파헤칩니다. <작가님, 어디 살아요?>는 세계 문학 거장들이 거닐던 거리와 그들이 즐겨 찾던 식당, 글을 쓰고 사색에 잠겼던 카페를 소개합니다. 밀란 쿤데라의 황금의 고도 프라하, 피츠제럴드의 프랑스 리비에라 등 작가들의 예술혼에 불을 지폈던 ‘문학 순례’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서울 문학 기행  
방민호 지음 / 아르테(arte) 펴냄  
작가님, 어디 살아요?  
모니카 드레이크 외 32명 지음 / 오현아 옮김 /  
Gracia Lam 그림 / 마음산책 펴냄



당신의 일이 암을 만든다?!

## 직업성 암

암은 유전에 의해 생긴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암 발생 원인의 90% 이상은 환경적 요인 때문입니다. 흡연, 음주, 식이습관, 작업환경 등이 환경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이중에서 일하는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암은 전체 암 중에서 약 4% 정도입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 약 15% 정도가 직업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업성 암은 산재보상제도가 적용되어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직업성 암과 이를 유발하는 직업 환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글 고동희(국제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부교수)

### 폐로 흡입된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성 폐암

우리는 숨을 쉴 때 폐를 통해 공기를 들이 마시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비산되는 환경에서 장기간 일하는 경우 직업성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폐암 유발물질로는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크롬, 니켈, 카드뮴, 베릴륨,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디젤 엔진배출물질, 라돈 등이 있습니다. 석면과 유리규산은 돌가루의 종류로서 석면은 단열, 브레이크라이닝 교체 작업 등에서 발생하며 유리규산은 광산, 주물 작업 등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소, 크롬, 니켈, 카드뮴, 베릴륨은 중금속으로 금속 제련, 주물 등의 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유기물질의 불완전 연소시에 발생하는데, 제철소의 코코오븐, 타르작업 등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디젤엔진배출물은 디젤 트럭, 지게차 운전 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라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으로 광산, 지하철 등 지하 시설 근무 시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유기용제 노출 통해서도 유발, 직업성 림프조혈계암

폐암에 이어 직업성 암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백혈병과 림프종 등 림프조혈계입니다. 림프조혈계암 유발 발암물질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벤젠과 1·3-부타디엔은 유기용제의 종류로 석유정제, 석유화학제품제조 공정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접착제, 병리조직 고정 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고, 산화에틸렌은 병원에서 소독용 가스로 사용되며 소독 작업 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리방사선은 병원, 비파괴검사, 원자력 발전소, 제철소, 식품공장 등 다양한 업무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암종들

폐암과 림프조혈계암 외에도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암으로는 코인두암, 방광암이 있습니다. 코인두암은 포름알데히드, 목재분진 노출시 발생 할 수 있으며, 방광암은 염료 생산, 도장 작업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후두암, 피부암 등 여러 종류의 암종들이 직업적 노출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직업성 암의 예방과 보상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수명까지 살 경우 세 명 중 한명은 암에 걸립니다. 그만큼 암은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암의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서는 흡연, 음주, 식이, 운동 등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직업성 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보호구를 잘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암에 걸리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업성 암은 산업재해로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암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된다고 바로 생기지 않고, 보통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지나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 드린 작업환경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경력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회사)에 보험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 업무와 암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금리’만 잘 알아도 재테크 고수

지난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 인하해 1.25%로 확정했습니다. 2년 만의 역대 최저수준에 도달해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방법이 막막하기만 하다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금리를 잘 들여다보면 물가와 주가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렇게 재테크 지수가 쑥쑥 올라갈 것입니다.

정리 편집부



## 초저금리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눈곱만큼, 쥐꼬리만한 금리 따위를 알아서 무엇에 쓰냐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지금 이 시기의 경제가 함축된 작고도 위대한 수치입니다. 금리가 변화하면 물가와 주가가 영향을 받고 예금은 물론 보험, 대출, 주식, 펀드, 채권 등이 모두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동합니다.

‘금리’의 사전적 의미는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이자율’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금리를 달리 말하면 기회비용과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즉, 당장 원금 그러니까 현금의 사용을 미룬 데 대한 대가이기도 하고, 그 현금을 어딘가에 투자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돈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아주 다각적이고 중첩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리만 제대로 알아 재테크 고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저축만 하는 건 금물, 그러나 저축은 필수

요즘 같은 1% 금리 시대에도 저축은 한결 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저축만 하는 건 안 되지만, 저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투자금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투자금이 있어야 공격적이든 방어적이든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투자는 이익과 손해로 등락이 발생하지만 저축은 차곡차곡 쌓이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불안정한 시기에 이렇게 든든한 안심 처방이 또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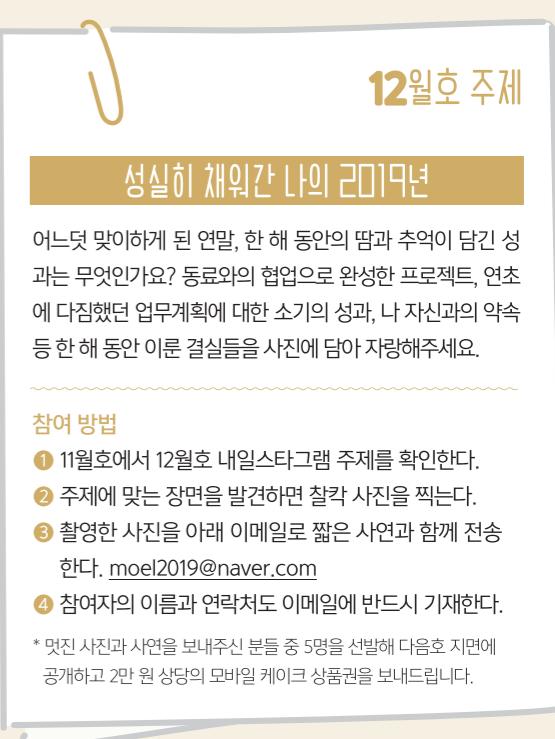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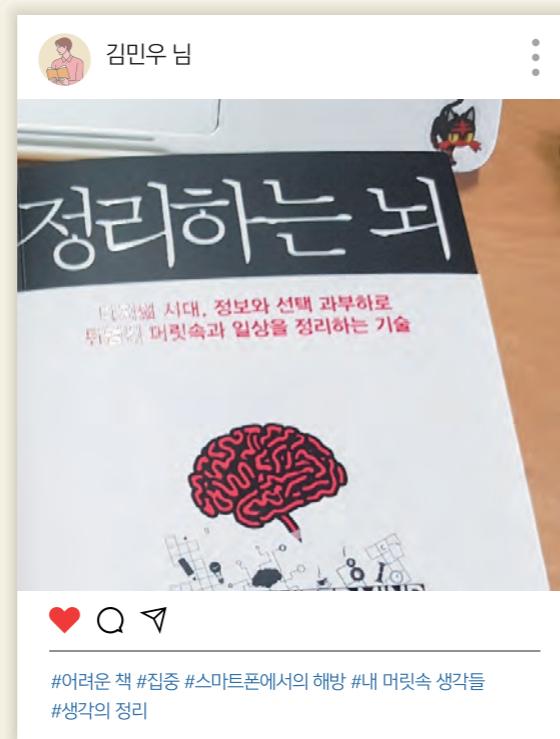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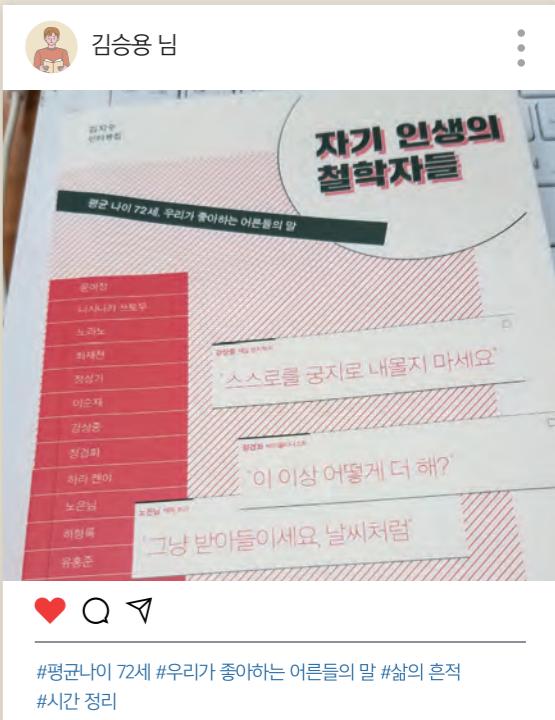
한편,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에는 반드시 ‘고금리 고수익’을 내건 상품들이 유혹을 하곤 합니다. 고금리라는 말만 들어도 눈길이 가는 건 당연지사지만 이 시기에는 보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한 번에 큰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기간 설정을 짧게 하면서 작게라도 꾸준히 이익을 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의 사이트 ([www.kfb.or.kr](http://www.kfb.or.kr))나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http://finlife.fss.or.kr>) 등을 통해 여러 은행들의 금리를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길 권합니다.

## 하루를 맡겨도 금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요즘 많은 이들이 일반적인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보다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하는 증권사의 CMA 통장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CMA 통장의 금리는 보통예금 통장과 같이 대부분 1%대입니다. 그런데 자동이체나 개인체크카드를 연동해 사용하는 등의 옵션을 통해 금리가 3%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CMA 통장은 크게 RP형, MMF형, MMW형, 종금형 등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RP형의 경우에는 확정금리를, MMF형이나 MMW형의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종금형의 경우에는 확정금리를 받으면서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요즘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은 CMA 통장 RP형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5~7%대까지 금리를 우대하곤하는데요, 물론 상세내역이나 제한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금리가 낮다고 포기하지 말고, 금리를 제대로 따져 확실하게 재테크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요즘입니다.

# 내가 사랑하는 책 – 함께 나눠요

요즘 출퇴근길에 함께 하는 책이 있나요? 깊은 여운이 남아 함께 읽고 싶은 책,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삶의 교훈으로 가득한 책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여기, 잠시 독서 감상회를 열어보겠습니다.



제 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 2020 일자리 사업

**함께 잘 사는  
포용의 힘**

**예산규모**

2019년 165개 사업 21.2조원 (24개 부처·청)	→ 2020년 168개 사업 25.8조원 (24개 부처·청)
---------------------------------------	---

**유형별**

고용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프로그램 +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 현장수요 맞춤형 훈련 신규 4,800명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1,400 → 1,700명 – 국민내일배움카드 48.2만명	고용안전망 (실업소득)  • 실업급여 강화 –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 30일 연장
---	---	--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b>청년</b>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만명 → 29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25만명 → 35만명	<b>여성</b>  • 모성보호 육아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 → 2년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유급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b>신중년</b>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규 1,1만명) – (지원수준) 1인당 월 30만원 • 신중년 경력형·사회공헌 일자리 1,25만명 → 2만명									
<b>장애인</b>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 신규 설립 • 장애인 고용장려금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tr> <th></th> <th style="text-align: center;">여성</th> <th style="text-align: center;">남성</th> </tr> <tr> <td>중증</td> <td style="text-align: center;">60 → 8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 → 60만원</td> </tr> <tr> <td>경증</td> <td style="text-align: center;">40 → 45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만원</td> </tr> </table>				여성	남성	중증	60 → 80만원	50 → 60만원	경증	40 → 45만원	30만원
	여성	남성									
중증	60 → 80만원	50 → 60만원									
경증	40 → 45만원	30만원									

**보다 나은 정부** 고용노동부

퇴근이 있는 삶

#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도 최대 주 52시간

준비가 어렵다면? 현장지원단으로!

고용지원관  
고용감독관  
장애인무사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  
온라인 [www.moel.go.kr/52-hour.do](http://www.moel.go.kr/52-hour.do)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

# Quiz

10월호 퀴즈 정답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10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강상철(서울시 서대문구)  
강서영(부산시 사하구)  
김명화(강원도 춘천시)  
김상훈(서울시 동대문구)  
김지영(대구시 중구)  
안세용(서울시 영등포구)  
오동록(전북 군산시)  
윤태현(경기도 성남시)  
이병길(대구시 서구)  
정현진(경기도 안산시)

## 월간 <내일> 11월호 퀴즈

지난 5월 개소한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로 서울·경인권에 거주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힌트 1. □□□□□□□ □□□□□(한글로 열 글자)  
힌트 2. 지금 바로 13페이지를 열어보세요.

퀴즈 정답을 엽서에 적어 매월 20일까지 <내일>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월간 <내일>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월간 <내일>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알고 싶은 정책, 읽고 좋았던 기사, 또는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 등 자유로운 의견을 엽서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새로운 독자를  
환영합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월간 <내일>을 우연히 만나셨다면, 원하시는 주소로 매월 편하게 받아보세요. 아래 1번과 2번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구독 신청은 다음 달부터 반영돼 매달 우편으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엽서에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2. 웹진([www.labor21.com](http://www.labor21.com))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 \* 주소를 적어 주실 때, 빌라 또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모두 적어주세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www.labor21.com](http://www.labor21.com)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검색창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거나 'www.labor21.com'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해서 모바일 웹진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